

영어 좌향전위구문과 주제화구문의 주제구문의 구조적 차이

조 의 연
(동국대학교)

Cho, Euiyon. On the structural status of the preclausal NP of English Left-Dislocation and Topicalization Revisited. *Linguistic Research* 18, 37-47. There are two different positions on the word order of English topicalization and left-dislocation. Birner and Ward (1998) assume that the topic phrase of topicalization is preposed and that of left-dislocation is not. On the other hand, Lambrecht (1994) proposes that the two syntactic constructions have a topic position independent of the following clause and have the same syntactic structure. Based on Lasnik and Saito (1992), this paper shows that the topic expression of left dislocation occupies a base-generated topic phrase dominating the CP while the topic expression of topicalization constructions is adjoined to IP, being moved from an argument position. This explains why the topic phrase of topicalization cannot occur on the left of the topic phrase of left dislocation as observed by Ziv (1994) as well as providing a structural reason for the unlinked topic NPs in English observed by Lambrecht. (Dongguk University)

1. Prince (1998)는 아래와 같은 영어 좌향전위구문과 주제화구문의 구조를 각기 (3)와 (4)로 표시하고 있다.

(1) 좌향전위구문:

She had an idea for a project. She's going to use three groups of mice. One she'll feed them mouse chow, ...

(2) 주제화구문:

A: Do you watch football?

B: Yeah. Baseball I like a lot better.

(3) 좌향전위구문 구조

[_{CP} [_{NP} X_i] [_{IP} ... [_{NP-pro} X_i] ...]]

(4) 주제화구문 구조

[_{CP} [_{NP} X_i] [_{IP} ... [_{e_i}] ...]]

이 논문의 첫 번째 목적은 위와 같은 통사적 표상은 좌향전위구문과 주제화구문에서 주제 명사구가 가지는 구조적 차이를 적절히 표시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이는 것이다. 즉, 두 구문에서 주제 명사구 모두 IP와는 분리된 외부에 위치하는 것으로 표시되어 있다. 그러나 이 소 논문이 앞으로 보이겠지만, 주제화구문의 주제 명사구는 전치되어 IP에 부가되어 있으며 좌향전위구문에서 주제 명사구는 CP에 부가된 외곽에 위치한 성분으로 계층적 구조가 다르다.

한편, 이 두 구문의 담화분석 연구에 따르면, Prince(1998)와 Ward and Birner(1998) 등의 연구는 주제화구문은 어순의 재배치에 의한 전치현상으로 보고 있으며 좌향전위구문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다층구문구조를 설정하는 생성문법의 관점에서 말하면, 주제화구문은 이동에 의한 구문이며 좌향전위구문은 통사적 이동이 없는 구문이라고 보는 것이 이들의 관점이다. 즉, 위의 주제화 구문 예문 (2)에서 'baseball'은 동사 'like'의 하위범주화 된 논항으로 동사의 목적어 위치에서 문두로 이동하였다고 보는 반면, 좌향전위구문의 예 (1)에서 문두의 'one'은 'feed'의 목적어 'them'과 동지시 관계를 가지지만 이 성분의 문두 위치는 이동에 의한 것이 아니라 기저 구조에서 생성된 것이라는 입장이다. 한편, 이들과 달리, 좌향전위구문을 주제화구문과 관련하여 다룬 Lambrecht(1994)는 이 두 구문의 문두 주제명사구는 이동에 의한 것이 아닌 기저 생성된 것이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논문의 두 번째 목적은 위 두 구문의 통사구조에 대한 생성문법의 연구에 기초하여 Birner and Ward (1998)의 입장이 타당함을 보이며 두 구문의 통사구조에 대한 면밀한 연구는 담화-화용론자들이 관찰한 두가지 현상- 좌향전위의 주제표현은 주제화의 주제표현 보다 항상 외곽에 발생하여야 한다는 것과 영어에서 비 연결 주제구문은 어떻게 가능한가-에 대한 설명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¹⁾

1. 첫 번째 현상은 (i)이 보여주는 현상이다.

- (i) a. Rosa Berkoff, movies, she can't stand, but books ...
- b. *Movies, Rosa Berkoff, she can't stand, but books ...

한편, 두 번째 현상은 Lambrecht가 관찰한 아래와 같은 구문으로 주제표현 'tulips'는 뒤따르는 절 내의 어떤 표현과도 동지시 등 어떤 통사의미적 관계를 가지지 않고 있다.

- (ii) Tulips, you have to plant new bulbs every year?

이에 대한 설명은 4절에서 이루어진다.

다음절에서는 기능주의자들의 관점에서 본 좌향전위구문과 주제화구문의 형식적인 유사성에 대한 논의와 이 논문이 반박하고자 하는 Lambrecht의 입장을 소개한다. 3절에서는 Lasnik and Saito (1992)에 기초하여 주제화구문은 이동에 의한 구문임을 보이고 좌향전위구문은 그렇지 않음을 보인다. 또한 좌향전위구문의 주제표현은 영어의 구구조에서 CP의 교점을 지배하는 반면, 주제화구문의 주제표현은 IP에 추가됨을 보인다. 4절에서 저자는 이와 같은 통사구조의 차이는 비연결 주제화구문은 좌향전위구문의 확장임을 보여줄 것이다.

2. 전술한 바와 같이 좌향전위구문과 주제화구문의 화용-정보 구조를 연구한 Birner and Ward(1998)와 Lambrecht(1994)는 이 두 구문을 서로 다르게 보고 있다. Birner and Ward는 주제화구문을 전치(preposing) 현상으로 그리고 좌향전위구문을 비 전치구문으로 보고 있다. 한편 Lambrecht는 이 두 구문 모두 어순이 재배치되지 않은 비 전치 현상으로 보고 있다.

Birner and Ward가 언급하였듯이 영어의 주제화구문과 좌향전위구문은 피상적으로 유사하다. 아래와 같은 (5a)의 좌향전위구문과 (5b)의 주제화구문은 문두에 나타난 주제 명사구와 조용관계를 가지는 요소가 뒤따라오는 절 내에서 발견된다.

- (5) a. The wizard, he lived in Africa.
 b. The product I feel less good about.

잘 알려져 있듯이 주제화구문인 (5b)를 전치현상으로 보는 이유는 문두에 나타난 성분인 'the product'가 뒤따라오는 절 내의 전치사 'about'의 하위범주화된 논항으로 공백을 보이기 때문이다. 한편, 좌향전위구문에서 문두의 주제 명사구와 조용관계에 있는 요소는 절 내에서 공백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대명사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주제 명사구가 전치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한편, Birner and Ward와 달리, Lambrecht는 좌향전위구문은 물론 주제화구문에서 주제 명사구, 그의 용어로는 분리된 요소(detached elements)는 다음 절 내의 논항일 필요는 없다는 입장을 취한다. 문두의 주제 명사구가 다음 절 내의 "논항일 필요가 없다"라는 입장은 문두의 주제 명사구는 전치에 의한 이동에 의한 어순의 재배치가 아닌 원래 어순이라는 것이다.

그의 이러한 입장은 아래의 (7)와 (8)의 '연결되지 않은 주제 구문'에 기초하고 있다.

- (Six year old girl, explaining why the African elephant has bigger ears than the Asian elephant)
- (6) The African elephant, it's so hot there, so he can fan himself.
(Talking about how to grow flowers)
- (7) Tulips, you have to plant new bulbs every year?
(From a TV interview about the availability of child care)
- (8) That isn't the typical family anymore. The typical family today, the husband and the wife both work.

위의 구문들의 공통점은 분리된 명사구의 지시체는 모두 주제(topic)로서 뒤따라 나오는 명제들이 이에 관한 것이다. 즉, 분리된 명사구는 다음 절의 주제이다. 그런데 이들 주제 명사구의 경우, (6)을 제외하고, (7)과 (8)의 명제 절 내의 어떤 논항 위치와도 관계하지 않고 있다. 즉, (7)과 (8)의 주제 명사구는 다음 절 내에 어떤 요소와도 조응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다. Lambrecht에 따르면, 주제 명사구의 지시체가 다음 절의 명제 내용에 관한 것으로 해석되는 한, 해당 구문의 문형은 가능하기 때문에, 그는 분리된 명사구 구문에서 주제 명사구와 뒤따라 나오는 절의 내부 성분과 '연결'되지 않아도 된다고 본다. 이러한 입장을 확대하여, 그는 공백(gap)이 있는 분리된 명사구 구문, 즉 주제화구문의 주제 명사구도 다음 절의 논항이어야 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 다음은 이에 관한 그의 언급이다.

(T)he (detached) topic NP is not anaphorically linked to an argument whether overt or null, in any of the propositions about the topic. It follows that the topic phrase cannot be an argument in the clause with which it is associated. Now since the unlinked topic NP appears in the same position as the linked one, it follows that the latter does not have to be an argument NP within the clause. (Lambrecht 1994:193-4)

이와 같이 주제 명사구가 다음 절의 논항일 필요가 없다는 것은 이 성분의 위치를 선형적으로 발생하는 문두에 발생한 것으로 보는 것이다. 이러한 입장은 주제화구문과 좌향전위구문의 주제 명사구가 표면 위치인 문두에 위치하게 된 것은 전치에 의한 어순의 재배치가 아니다라는 것이다.²⁾

2. 그의 용어를 빌려말하면 'linked topic NP' 구문이나 'unlinked topic NP' 구문이나 해당 주제 명사구는 표면적인 위치인 문두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다.

이와 같은 그의 입장은 문두의 주제 명사구가 뒤따른 절 내의 어떤 성분과 연결되어 있는 유무와 관계없이 주제성과 화용-의미적으로 연결되는 조건만 충족하면 되므로 통사적으로 논항의 위치와 연결되어야 한다는 제약이 불필요하다는 것이다. 결국, 논항의 위치와 연결된 구문이나 그렇지 않은 구문이나 위의 화용-의미 요건만 만족시키면 되므로 문두의 주제명사구가 절 내의 논항 위치와 연결되는 구문이나 그렇지 않은 구문을 동일하게 다루자는 입장이다. 따라서, Lambrecht의 입장을 다층 통사이론인 생성문법의 관점에서 기술하면, 좌향전위구문이나 주제화구문의 문두 주제명사구는 기저 생성된 성분으로 두 구문의 표면 어순은 원래 어순이라는 것이다.

3. 우리는 주제 명사구와 뒤따르는 절 내의 동지표 관계를 이루는 요소와의 통사적 관계 현상을 통하여 두 구문이 통사적으로 다름을 관찰할 것이다.³⁾ 좌향전위구문과는 달리 주제화구문의 경우 주제 명사구는 절 내의 논항 위치와 연결되어 있는 어순의 재배치인 전치 현상임을 볼 것이다. 전치 여부는 일종의 이동현상에 의한 논의이므로, 우리는 Lasnik and Saito(1992)에 기초하여 논항의 공백 위치와 관계하는 섬 제약조건 및 that-trace 효과 등 이동제약에 관한 통사적 논의를 전개하면서 좌향전위구문은 이동제약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보인다.

Ross(1967)의 관찰에 따르면 좌향전위구문은 주제 명사구와 섬인 복합명사구 내의 대명사와의 관계에서 섬 제약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 아래의 예는 이를 보여준다.

(9) This book, I accept the argument that John should read it

위에서 'the argument that John should read it'은 복합명사구로 통사적 섬으로서 이 내부에 있는 'it'은 동지시 관계를 가지는 'this book'과 통사적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문법적인 문장이다. 결국, 복합명사구 내의 요소는 외부의 요소와 통사적 관계를 가질 수 없다는 하위인접조건을 제약을 받지 않고 있다. 이는 좌향전위구문은 복합명사구 섬 제약조건을 만족시키지 않아도 되는 구문의 특성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주제화구문은 섬 제약조건을 만족시켜야 함을 주제화구문은 보여준다. 위의 좌향전위구문 (9)와 달리 (10)의 주제화구문은 복합명사구 섬 제약과 관련하여 문법성이 아주 나쁜 상태를 보여주고 있다.

3. 이 두 구문에 대한 통사연구는 Lasnik and Saito(1992)에 기초하였다.

(10) ??This book I accept the argument that John should read

생성문법이론에서 섬 제약은 만족시키는 통사현상이란 이동임을 말한다. 섬 제약이 적용되는 복합명사구 내의 성분이 논항위치에 위치하고 있는 경우 이 성분은 복합명사구를 벗어날 수 없다. (10)에서 섬 제약조건이 적용되는 복합명사구 내의 'this book'이 섬 영역 밖으로 이동할 수 없다는 것은 이 성분이 복합명사구 내포절 내의 논항 위치인 'read'의 목적어 위치에 있기 때문이다. 한편 좌향전위구문인 (9)에서 이와 같은 문법성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은 문두의 주제 명사구는 복합 명사구 내의 논항 위치에 위치하는 명사구가 아님을 말한다. 즉 (9)에서 복합명사구내의 대명사 it은 문두의 주제표현과는 독립적으로 통사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을 암시한다. 결국, 주제화구문의 주제 명사구는 이동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 제약을 받는 것이다. 반면에, 좌향전위구문은 섬인 복합명사구 내의 대명사와 문두의 주제 명사구가 섬제약에 의한 제약을 받지 않는다. 즉 하위 인접조건에 의한 제약을 받지 않는 이 둘의 관계는 이동에 의한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말한다.⁴⁾

이를 뒷받침하는 다른 구문 현상을 보기로 하자. 주제화구문은 wh-question 구문과 동일하게 이른바 'that-trace' 효과를 보여주는 반면 좌향전위구문은 이 영향을 받지 않는다. 아래의 예가 이를 보여준다.

- (11) a.*John I think that won the race
 b. John I think that he won the race

that-trace 효과를 보이는 'who do you think that won the race'의 구문이 비문법적인 이유는 'who'가 'that' 다음 공백으로 나타난 논항의 위치와 통사적 관계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11a)가 비문법은 주제화명사구 'John'이 'that' 다음 공백으로 나타난 논항의 위치에 있기 때문이다. 한편, 어떤 성분이 논항의 위치와 관계하고 있다는 것은 그 성분은 해당 절의 한 부분임을 말한다. 좌향전위구문의 경우 정문이 되는 것은 주제명사구와 'that' 다음에 나타난 'he'가 이동에 의한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말한다. 결국 (11a)는 주제화구문의 주제 명사구는 이동에 의한 전치된 구성 성분임을 증명한다.

4 좌향전위구문에서 주제명사구와 동지시 관계를 형성하는 절 내의 대명사가 resumptive pronoun인 경우, 이는 이동에 의한 결과이기 때문에 복합명사구 내에 있는 대명사는 섬 제약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섬 제약에 의한 제약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이 대명사가 이동에 의한 resumptive pronoun이 아니라는 것을 말한다.

지금까지의 논의는 주제화구문의 주제표현은 이동에 의해 문두에 나타난 구성성분이기 때문에 주제화구문은 어순이 재배치된 구문이며 좌향전위구문의 주제표현은 어순이 재배치된 성분이 아님을 말한다. 이러한 것은 두 구문의 주제표현을 어순의 재배치로 보지 않으려는 Lambrecht의 제안은 통사적으로 타당하지 못함을 보여준다. 이 두 구문은 어순에 의한 재배치 여부에서도 차이를 보일 뿐 아니라 문두에 나타나는 두 주제표현이 차지하는 통사적 위치도 다를 수 있다는 보고자 한다. 즉, 좌향전위구문의 주제표현은 CP 상위에 위치하며 주제화구문의 주제표현은 IP에 부가됨을 볼 것이다.

주제화구문의 주제표현과 좌향전위구문의 주제표현의 구문성은 이동에 의한 것뿐만 아니라 구성성분의 구조적 위치도 달리한다. Lasnik and Saito가 인용한 예에 따르면, 주제화구문은 내포문에서 가능한 반면, 좌향전위구문은 그렇지 않다. 아래의 예를 보기로 하자.

- (12) a. I believe that this book, you should read.
 b.*I believe that this book, you should read it.

(12a)는 주제화구문의 주제표현은 CP와 IP 사이에 위치함을 보여준다. (12b)는 좌향전위구문의 주제표현은 내포문에서 발생할 수 없음을 보여준다. 만일 주제표현의 통사위치가 이동에 의해 생성되지 않고 기저의 구구조에 의해 설정되어 있는 경우 (12b)를 문법적으로 허용하게 된다. 이에 기초하여 Lasnik and Saito는 좌향전위구문의 주제표현은 모절에서만 발생하고 이동제약을 받지 않음에 기초하여 이 표현이 모절에서 만 발생할 수 있는 구구조를 설정한다. 즉, 보문절을 보어로 하는 주제구(topic phrase)를 설정한다. 한편, 주제절은 내포문에서 발생하지 않으므로 주제화구문의 주제표현이 이동에 의해 발생하는 통사적 위치는 좌향전위구문의 그것과는 다를 수밖에 없다. 결국, Lasnik and Saito에 따르면, 주제화구문의 주제표현은 이동제약을 준수하는 한, 모절 뿐 아니라 내포절에서도 발생하여 하므로 이 성분은 절(IP)에 부가되는 성분이어야 한다. (12a)의 성분구조를 꺾쇠 괄호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 (13) [_{IP} I believe [_{CP} that [_{IP} this book [_{IP} you should read t]]]]

한편, (9)의 'This book, I accept the argument that John should read it'의 구문구조를 꺾쇠괄호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 (14) [_{TOP} this book [_{CP} ∅ [_{IP} I accept [_{NP} the argument [_{CP} that John should read it]]]]]

좌향전위구문에서 주제명사구가 IP의 경계 밖에 있다는 주장은 여러 학자에 의해 이루어졌다. Ziv(1994)는 좌향전위구문에서 절 내의 어떤 요소도 주제명사구보다 왼쪽에 위치할 수 없음을 보여준다.

- (15) a. Rosa Berkoff, last year she lost 20 pounds.
b.*Last year, Rosa Berkoff, she lost 20 pounds.

또한 좌향전위구문의 주제 명사구는 주제화구문의 주제 명사구의 외곽에 위치할 수 있으나 그 반대는 가능하지 않음을 아래의 예들은 보여준다.

- (16) a. Rosa Berkoff, movies, she can't stand, but books ...
b.*Movies, Rosa Berkoff, she can't stand, but books ...

이것은 주제화구문의 주제 명사구는 IP에 부가되며 좌향전위구문의 주제 표현은 기저구조에서 생성된 모절의 가장 외곽에 발생하는 구 구조 성분임을 뒷받침하고 있다. (16a)의 구 구조는 다음과 같이 표시된다.

- (17) [_{IP} Rosa Berkoff [_{CP} ∅ [_{IP} movies [_{IP} she can't stand]]]]]

위에서 논의한 두 구문의 통사적 차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좌향전위구문의 주제표현은 이동에 의한 제약을 받지 않는다. 한편, 주제화구문의 주제표현은 이동제약을 받는다. 이러한 차이 외에도, 두 가지 유형의 주제표현을 수용하는 영어의 구 구조는 다르다. 주제화구문의 주제표현은 모절과 내포절 모두에서 발생하여 IP에 부가되어 발생한다. 한편, 좌향전위구문의 주제표현은 모절의 기저구조에서 생성된 주제표현 성분 위치에 발생한다.

4. 위의 두 구문구조에 대한 논의를 Prince(1998)가 가정한 두 구문의 구조와 비교하여 보면 그 상이점이 나타난다. 위에서 예를 든 두 구문에 대한 Prince의 구조를 다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좌향전위구문 구조

(18) [CP [NP X_i] [IP ... [NP-pro X_i] ...]]

주제화구문 구조

(19) [CP [NP X_i] [IP ... [e_i] ...]]

Prince는 두 구문에서 주제표현의 구 구조를 동일하게 보고 있다. 즉, IP의 외곽에 위치하며 CP에 포함된 구조이다. 두 구문에 대한 이러한 구조는 (16a)와 (16b)에 나타나는 좌향전위구문의 주제표현과 주제화구문의 주제표현의 분포현상을 설명하지 못한다. 이와 달리 우리가 본 생성문법에서 가정하는 두 구문에 대한 아래의 구조는 이를 수용할 수 있다.

좌향전위구문 구조

(20) [TOP [NP X_i] [IP ... [NP-pro X_i] ...]]

주제화구문 구조

(21) [CP [NP X_i] [IP ... [e_i] ...]]

즉, 좌향전위구문의 주제표현이 발생하는 주제구는 주제화구문의 주제표현보다 계층적으로 상위를 점하고 있으므로 선형적으로 이동에 의한 주제표현보다 앞서 발생할 수 있음을 예측한다. 따라서 (16a)는 가능한 반면에 (16b)는 불가능하다. 결론을 말하면, 선형적인 측면에서 볼 때, 두 구문의 주제표현은 문두에 나타나는 공통점을 가진다. 그러나 구 구조의 내부적인 계층구조에서 볼 때, 두 성분의 통사적 지위는 다르다. 주제화구문의 주제표현은 동사 체계의 확장인 IP와 연결되어 있으며, 좌향전위구문의 주제표현은 IP 체계와는 독립적인 CP 외곽에 위치하고 있다 (Rizzi 1997:284-5 참조).

두 구문의 이러한 구 구조상의 형식적 차이는 Lambrecht가 관찰한 주제표현 비 연결구문이 왜 가능한가를 설명하여 준다. Lambrecht가 관찰한 아래와 같은 주제표현 비 연결구문은 즉, 공백을 결여하고 있을 뿐 아니라 주제표현과 동지사 관계를 가진 대명사가 절 내에 발생하지 않는 아래 구문은 좌향전위구문의 확장이라고 볼 수 있다.

(Talking about how to grow flowers)

(22) Tulips, you have to plant new bulbs every year?⁵⁾

(22)에서 주제표현 'tulips'는 뒤 따르는 절 'you have to plant new bulbs every year'의 구성성분과 동지시 관계를 가지지 않지만 문법적인 문장이다. 이는 영어의 구구조에서 주제절은 CP를 보어로 하는 주제구를 가지고 있다는 가설에 의해 수용된다. 좌향전위구문의 주제표현은 절의 핵심인 동사의 확장체계인 IP와는 독립되어 발생하기 때문에 IP 내의 성분과는 독립된 성분을 허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CP 외곽에 기저생성되는 주제표현은 명제의미 단위인 IP내의 어떤 논항과도 통사적으로 독립되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20)와 같은 비연결 좌향전위구문이 가능하다.

어순 및 통사구조가 화용-정보구조와 상호관계가 있음은 널리 알려져 있다. 따라서 표면적으로 유사한 두 구문의 통사 구조에 대한 규명은 “두 유형의 문장 구성체가 보이는 형식적 차이는 기능적 차이와도 일치한다”라는 가설을 실험하는 기초가 되기 때문에, 담화-화용론자들도 해당 구문의 통사구조를 단순히 가정한다기 보다는 형식문법의 연구를 면밀히 검토함으로써 담화-화용연구를 더 발전시킬 수 있다고 본다.⁶⁾

5 이 논문에서 좌향전위구문과 대비되는 주제화구문은 공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섬 제약이 적용되는 영역을 공백으로 한정시키고 있다. 그리고 이 문장의 화용적 의미해석에서 'new bulbs'는 문두에 위치한 'tulips'에 연결되는 것으로 동지시 관계를 이루는 대명사 'their'가 의미해석에서 추가되는 것으로 본다. 이러한 측면에서 저자는 Lambrecht의 입장을 좇아 이 문장을 좌향전위구문의 확장 형태로 본다.

6 한편, 공백을 가진 주제화구문의 주제표현은 담화에서 발생한 정보나 추론 가능한 정보와 연결되어 있어야 하는 주제화구문 고유의 화용적 제약을 가지고 있는데 공백과 관계된 표현의 지시 대상은 담화에서 인지적용 활성화되어 있어야 한다는 담화인지 기능과 일치한다. Prince에서 인용된 주제화구문의 담화 화용적 특성 가운데 본 논의와 관련된 담화 화용제약을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Double Discourse Function of Topicalization

- (i) Topicalization triggers an inference on the part of the hearer that the entity represented by the initial NP stands in a salient partially ordered set relation to some entity or entities already evoked in the discourse-model.

주제화구문이 수행하는 담화 화용 기능은 이외에 추가적인 것이 있다. 이에 관한 것은 Prince(1998)를 참조하기 바람. 또한 이러한 담화 화용적 제약을 보이는 주제화구문의 다양한 예에 대해서는 Bimer and Ward (1998)를 참조하시오.

참고문헌

- Birner, B and G. Ward. 1998. Information Status and Noncanonical Word Order in English. Amsterdam: John Benjamins Publishing Company.
- Lambrecht, K. 1994. Information Structure and Sentence Form.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Lasnik, H. and M. Saito. 1992. Move- α . Cambridge, Mass.: MIT Press.
- Prince, E. 1997. On the Functions of Left-Dislocation in English Discourse. Directions in Functional Linguistics. ed., Akio Kamio, 117-143.
- Rizzi, L. 1997. The fine Structure of the Left Periphery. Element of Grammar: Handbook in Generative Syntax. ed., Liliane Haegeman, 281-337.
- Ziv, Y. 1994. Left and right dislocations: discourse functions and anaphora. Journal of Linguistics 22, 573-601.

100-715

서울시 중구 필동 3가 26번지

동국대학교 영어영문학과

Tel: (02)2260-3161 Fax: (02)2260-3691

E-mail: choey@dgu.edu

접수일자: 2001년 2월 5일

개재일자: 2001년 4월 3일